

한국 기독교윤리학자의 공감, 공생, 공명을 위한 삶과 실천의 과제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윤리학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하라
- III.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IV. 한국인으로서 사회윤리적인 과제를 철저히 감당하라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6.01>

• ABSTRACT •

Tasks for Empathy, Symbiosis, and Resonance in the Life and Practice of Korean Christian Ethicists

Prof., Jeong, Chong-Hun (Yonsei University)

In the current society, empathy for the weak is becoming increasingly scarce. The individualistic way of life is often prioritized over the value of coexistenc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hear the sound of resonance in a society that lacks empathy and does not value coexistence. As a Christian ethicist, reflecting on my life and academic journey, I would like to challenge my colleagues in Christian ethics on how to produce academic results as a researcher. For Korean Christian ethicists, the first identity is an ethicist, followed by being a Christian and a Korean. They must sincerely and earnestly conduct academic research as ethicists, clarify their identity as Christians, and handle social ethical tasks as Koreans. Korean Christian ethicists must empathize with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coexist with people and nature, and strive toward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I hope that Korean Christian ethicists can create new opportunities and hopes for Korean society and the world community based on their own identities.

Key words: Christian Ethicist, Empathy, Principle of Complementarity, Resonance, Symbiosis, World Ethics

I.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 시대는 약자에 대한 공감(共感)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불안정한 지위의 개선을 요구할 때 별로 관심이 없다.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절박하게 주장하며 시위할 때 그들과 동조 시위를 하기는커녕 출근 시간을 불편하게 한다며 불평할 뿐이다. 전쟁과 정치적 억압,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최소한의 삶의 환경을 기대하며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난민들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돌려보내려 애를 쓰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사회를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제3국을 거쳐서 힘겹게 이남 사회까지 찾아온 탈북민들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가 않다. 이성애 중심의 사회에서 이성애와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을 하듯이 그들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¹⁾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생(共生)의 덕목보다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내면에 뿌리를 틀고 있다.²⁾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 산업화를 이룬 노인 세대와 민주화를 이룬 장년 세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에서 온갖 혜택을 누린 청년세대가 서로를 갈라치며 갈등하고 있다. 성별 간의 차별 역시 여전하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만든 유리천장을 깨지 못한

1) “‘동성애 관련’, 금지 불허 퇴출 등 규제강화”,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7512796309>, 접속일 2023.4.8. 한국기독교공보는 2017년 10월 21일자에서 한국교계의 영향력 큰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총회를 비롯한 대다수 교단이 정기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법이라서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결의한 것,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불허한다는 것,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것이며, 교회의 직원, 신학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헌법에 신설 삽입하기로 한다는 것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계의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2)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3).

채 2등 국민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다. 빈부 양극화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저주이고,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한국전쟁이 정전한 지 70년이 되었지만, 참회와 용서, 화해와 공존번영의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야 할 환경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살만한 환경을 물려주자고 외치기는 하지만 생태친화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 시대, 공생하지 않으려는 사회에서 공명(共鳴)의 소리를 듣기란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 행동 따위에 공감하여 그것을 따르려 하는 것이 공명이다.³⁾ 공감이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명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이다. 공생이 삶의 목적이라면, 공명은 공생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자 공생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다수는 자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진실에 대해서는 무지하며, 변화시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능력하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공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공명을 일으켜야 ‘혼자라는 나약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공명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협력적인 동지애를 발휘할 수 있다. 지금 진행되는 시대적인 문제들을 인식한 사람들이 서로 공명하며 공동의 과제를 실행할 때만 희망찬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

필자가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한 지 35년이 되었다. 1982년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목회를 하려는 일념으로 신학대학원(M.Div.)에 진학했지만, 국내의 어디든 공부하는 동안 계속 지급한다는 장학금을 받게 된 인연으로

3) 김성희/안효진/이용성, “리즘적 사유를 통한 공명하는 교육과정 생성하기”, 『생애학회지』 12권(2022), 1-19.

1988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처음으로 기독교윤리학(Th.M.)을 전공했다. 그러나 신학적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가 큰 전공 주임교수를 만나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농촌목회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좋은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독일 유학(留學)을 계획했다. 유학 중에 동서독 통일의 과정을 목격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작은 기여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독일 개신교협의회(EKD)가 1945년 이후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발표했던 성명서와 사회백서, 연구서 등을 연구했다.⁴⁾ 드디어 기독교윤리학 전공의 신학박사학위(Dr. theol.)를 취득하고 귀국했던 것이 1995년 12월 20일이었다.

1996년 1년 동안 연세대학교와 장신대학교, 한남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했다. 시간강사 1년을 채우지 않고서 1997년 3월 1일 관동대학교 기독교학과 기독교윤리학 교수로 취임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취임한 직후 강릉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 참여했고, 지역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영동크리스찬신문'을 창간했으며, IMF의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실업극복강릉시민연합'을 결성해서 노숙자와 실직자들에게 쉼터와 일터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섰다. 강릉에서 3년 6개월 동안 관동대학교 교수와 강릉시 기독교시민으로 생활했고, 2000년 9월 학기부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이자 기독교윤리학 전공의 교수로서 23년째 봉직하고 있다. 이제 정년이 멀지 않았다. 이 글을 통해서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살아온 삶과 그동안 천착(穿鑿)해온 학문적 과정을 돌아보며, 동료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 한국인 기독교 윤리학자로서의 삶과 학문함에 작은 도전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Chong-Hun Jeong, *Die deutsche evangelische Sozialethik und die Demokratie seit 1945 : Der Beitrag der EKD-Denkschriften zur Demokratie*, (Frankfurt am Main/ Berlin/ Bern/ New York/ Paris/ Wien: Peter Lang Verlag, 1997)

II. 윤리학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하라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정체성은 윤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이다. 학자를 수식하는 윤리학은 학문의 한 분야를 지칭하는 것이고, 근원적인 정체성은 학자에게 있다. 학자는 학문에 대한 내적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학문을 통해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학문적 내용을 창의적으로 전개할 근거가 되는 영감(천재적 착상)이 따라야 한다.⁵⁾ 내적 소명감이 없는 학자는 혹시 밥벌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라도, 학자로서의 자긍심과 보람, 기쁨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열정을 동반하지 않는 학자는 학자의 외적 명맥을 이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라도,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며 전공 영역에서 기여하는 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감이 따르지 않는 학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자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라도, 학풍을 이루며 후학을 도전하고 제자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학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⁶⁾

학자의 내적 소명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달란트를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학자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는 신앙적 확신에서 비롯된다. 학자의 열정은 자기 학문의 분야에서 논리적이고 섬세하며 설득력을 갖춘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각오할 때 꽃을 피운다. 학자의 영감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께

5)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김현욱 옮김,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동서문화사, 2020), 233-236.

6)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231-233. 막스 베버에 의하면, 학자의 자질과 교수의 자질은 별개이다. 학자로서는 뛰어나지만, 교수로서는 한심할 정도로 소양이 부족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학자라도 좋은 교수가 아니라고 평가받으면 그 교수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그러나 좋은 교수라고 평가를 받지만, 학문적으로는 미흡한 교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대학교수는 교육과 연구, 나아가 사회적인 봉사를 당연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병행해야 한다.

서 주시는 선물이자 노력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몰두하며 노력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발명가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학문의 길에 처음 들어서서 학도(學徒)라면, 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그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이다. 드디어 그가 어느 대학의 교수로서 자리를 잡으면, 학자의 길을 제대로 걸었다고 단단히 각오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학도로서의 순수함과 학자로서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독교윤리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⁷⁾ 모든 학문은 생물학적인 유기체처럼 생성과 발전과 소멸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기독교윤리학이 학문 또는 신학(神學)의 한 분야로 생성되어 어느 정도 위치를 갖는 것은 선배 학자들이 수고한 덕분이다.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독교윤리학자들의 진단과 처방을 주시하는 것은 선배 학자들이 수고한

7) 노영상,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위”,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2009), 9-37. 노영상은 그의 논제를 다룬 후에 한국의 기독교사회윤리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국기독교 사회윤리학이란 나름의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먼저 서구사회와 다른 한국사회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며, 한국적 입장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개인윤리의 영역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와 제도들의 개선과 사회정의 실현 및 사회변혁에 대해,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성경과 교리적 전통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나름의 사회윤리적 실천들에 대해 탐구하며, 이에 대해 우선은 다른 교단의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목회적이며 사회적인 실천을 책임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이러한 실천의 이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바, 일군의 전문적인 기독교 사회윤리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앙과 합리성의 양면을 겸비한 학문을 의미한다.”(34)

8)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편,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정보 자료집』 (서울: 동연출판사, 2014).

결실을 후배와 후학들이 누리는 셈이다. 향후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학자의 노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은 더욱 발전하며 기여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소멸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발전과 소멸이 기독교윤리학자로서의 철저함과 책임성 여부에 달려 있음을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무엇보다 윤리학자로서 윤리학의 제반 입장에 균형감을 갖고, 상보성의 원칙(Prinzip der Komplementarität)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상보성이 필요하다. 인간은 인간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의 영향 아래 살고 있다. 때문에 윤리학은 사회를 형성하는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윤리학의 과제는 인간과 사회의 변경 가능성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과 사회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면, 윤리학 자체는 중지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⁹⁾ 기독교윤리학은

9) M. Honecker, *Konzept einer sozialetische Theorie. Grundfragen evangelischer Sozialetik*, Tübingen 1971. 마틴 호네커에 의하면 개인윤리는 인격을 대상으로 한다.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의 주체성과 자율성에서 출발한다. 그 내용은 미덕과 의무에 있다. 그리고 사회윤리는 사회구조와 사회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도덕적 행위의 사회적인 조건과 의무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을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개인윤리가 사회윤리를 간과하면 윤리행위의 사회적, 공동체적인 조건들을 오해하게 만든다. 윤리적인 결정은 사회적인 상호맥락에 의존하고,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개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책임적인 인간과 인간적인 정의로운 사회구조는 서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윤리가 윤리적인 주체를 배제하고 사회구조만 과제로 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로 전락하고, 윤리적으로 책임있는 인격의 자리에 사회, 기술, 시대정신 등 익명의 것들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W. Huber, *Protestantismus und Protest. Zum Verhältnis von Ethik und Politik*, Hamburg 1987, 15: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다. 그것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변경하는 만큼 외형적인 삶의 관계들에 직면한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만큼이나 국가의 평화를 중시한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전인(全人)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A. Rich, *Wirtschaftsethik. Grundlagen in der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4, 129: "사회적 관계들의 구조적 변혁이

삶의 질이 달라진 기독교인이 사회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개인윤리적인 차원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회윤리적인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윤리학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회의 구조적인 타락과 악마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근사치적으로 가까운 사회건설에 필요한 주체적인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다음으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상보성이 필요하다. 심정윤리는 예수의 산상수훈에서 출발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태복음 5: 39-42)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심정윤리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우주적 절대윤리이다. 심정윤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행위하는 자의 책임이기보다는 어리석은 타인이나 세상의 책임이라고 본다. 그러나 책임윤리는 자신이 취할 행동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보다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그러나 책임윤리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허용할 위험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학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심정윤리의 지평 위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평화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되, 책임윤리의 지평에서 정치가들 못지않게 사회적 행위의 결과를 세심히

인간 개인의 본질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비진리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개인의 내적인 변화가 사회의 구조적인 불의를 반드시 제거시킨다는 것도 비진리이다.”

10) Max Weber, *Politik als Beruf*, 김현욱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동서문화사, 2020), 317-329.

예측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생명윤리와 생태윤리의 상보성 역시 중요하다.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인지를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규정한다. 태아의 생명이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생명이든 장성한 어른의 생명이든, 더 이상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은 연속된 하나의 생명이며, 어떤 순간에도 생명 존엄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생명윤리는 인간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를 생명의 존엄성 차원에서 규정한다. 뇌사판정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도구화하는 경우를 거부한다. 생명윤리는 인간의 생명이 예수께서 부여한 충만한 생명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인간의 생명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며, 풍성한 삶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독교윤리학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생태 생명의 보존과 공생적 책임을 다루는 생태윤리의 차원으로 나아가 기후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삶 권리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¹⁾

한편으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변적 유희에 빠지기보다는 언제나 실천적 학문성을 지향하며 자신의 윤리적 현장성을 견지하는 학자가 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실천만이 개인과 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윤리적 현장에 근거해야만 윤리이론의 공허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세계 윤리학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외 학자들과의 학문적 교류와 국내의 동료 학자들의 학

11) 김근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12) 필자의 경우에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사회적인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름대로 학자적인 실천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독교 언론 (한국기독교공보와 Gospel Today, CBS 기독교방송과 CTS 등)을 현장으로 활용했다. 또한 필자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의 활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문적 결실에 동일한 관심을 두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국내의 동료 학자들을 폄하하거나, 외국인 학자들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소비하는 학문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기독교적 정체성 위에 있는 기독교인과 ‘중간공리’로 소통해야 하는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과 방식을 도전하는 학자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인간답게 살아야 하고, 보편적인 선을 위해서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 더 노파심으로 추가하면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학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도록 진지하고 성실해야 하며, 편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논문의 작성만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논문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III.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정체성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윤리학자를 수식하는 기독교는 기독교윤리학자가 일반 윤리학자와 구별되는 출발점이고, 윤리학의 근거 또는 지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지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Christianity)라는 말은 그리스도(*Χριστός*, Christ)를 어원으로 해서 생성된 말이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מָשִׁיחַ, Messiah)를 번역한 희랍어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 다른 말로 ‘구원하는 자’를 의미한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종교이다. 왜 예수를 기름부음을 받은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로서 고백하는가? 예수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오셨으며, 하나님과 죄로 막힌 담을 십자가 위에서 허물고 화해하게 하는 제사장으로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구약성서에서 실제

로 기름부음을 받은 왕, 예언자, 제사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셨다.¹³⁾ 구약의 왕이 절대권력을 움켜쥐고 백성의 자유를 유린하거나 억압하며 백성의 섬김을 받았다면, 예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서 스스로 섬기는 왕이 되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자체로 실천하며 전한 예언자이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제사장이 곡식을 태우거나 동물을 죽여서 화해를 중재했다면,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직접 바쳐서 화해를 이룬 제사장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윤리학자라면, 예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일, 그리고 보복의 악순환을 깨뜨리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것들의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증하셨다. 이를 위해서 인간을 청지기로 삼아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며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공생할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인간 위에 인간이 있어도 안 되고, 인간 아래 인간을 두어도 안 되며, 그 누구도 다른 인간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해서 억압과 착취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와 용서와 헌신을 보여주셨다.¹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나그

13) 허호익, 『그리스도의 삼직무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네로 살았던 삶의 경험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가르치셨다. 다른 민족,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회적인 약자로서의 나그네에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을 갖거나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나그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새 하늘과 새 땅’(이사야 65: 17-25)의 비전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억울한 울음소리와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살인과 억압과 착취가 사라지고,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가 키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서로 다른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었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그분의 궁극적인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따름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디트리히 본회퍼가 ‘값싼 은혜’를 통해서 잘 지적한 바 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¹⁴⁾ 예수를 믿는 자는 오직 예수에게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오직 순종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를 따름은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체득해야 하는 진리 자체이며, 우리가 풍성히 해야 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예수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믿음의 도구가

14) Richard Bauckham, *Who is God?* 이형일 옮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116.

15)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손규태, 이신건 옮김, 『나를 따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35.

16)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61.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the Lord)이신 그분을 따름으로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며 전한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중심성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타자 중심성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친구로 다가갔고, 누군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면 그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요한복음 14:17)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며(에베소서 1:17), 우리에게 신성한 능력을 부여한다(디모데후서 1:7).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신성한 능력은 우리가 훈련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일 뿐이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고(고린도후서 4:13),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로마서 1:4),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도록 한다(에베소서 1:13).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살 수 있고, 미래를 희망차게 소망할 수 있다. 더욱이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가게 하며(고린도전서 12:31), 온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고린도전서 12:12-27).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으로 구분되고(고린도전서 12:4-11),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로 구분된다(갈라디아서 5:22-23). 이때 사랑이 빠진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은사일 수 없고(고린도전서 13:1-3), 사랑이 빠진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의 성령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와서 어디로 불어갈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서 우리의 모든 편견을 깨게 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게 하며, 옛사람의 방식을 떨쳐버리고 창의적인 새사람으로 거듭나 희망의 근원이 되게 한다.¹⁷⁾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기다리는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모든 편견을 떨쳐버리고 그분의 자유로운 역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하며,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신앙 양심을 포기하거나 '부귀와 명예'라는 mammon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신앙 양심을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수주의는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는 것이다.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과 잘못된 것을 개혁하자는 것은 둘 다 필요한 것이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 날개가 함께 작동해야 새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작동해야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 진보는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수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진보가 되어야 하고, 보수는 진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보수가 되어야 한다.¹⁸⁾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 진영만을 편들지 않으신다. 오히려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때 기독교윤리학자들

17) Leonardo Boff, *Holy Spirit*, 이정배 옮김, 『오소서, 성령이여』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7), 20.

18)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미래학회 좋은정책포럼,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파주: 나남, 2010)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호와증인’의 주장이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것은 이단인 여호와증인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장을 편 이들이 있었다.¹⁹⁾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전통은 실제로는 산상수훈에 근거한 기독교 평화주의의 오랜 전통이었다. 게다가 양심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권의 중요한 항목으로 이단의 신도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으로 인정받게 된 요즈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성(性, Sex) 소수자의 문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이다. 이제 기독교윤리학자들만은 교계의 주류입장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관심과 상관없이 기독교 본래의 정신과 가치를 추적해서 대변해야 한다.

IV. 한국인으로서 사회윤리적인 과제를 철저히 감당하라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에게 있어서 세 번째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기독교윤리학자가 자신이 위치한 삶의 구체적인 자리(Sitz im Leben)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의 이론과 주장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작금의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격정거리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지 않는가. 네이버(Naver)를 검색하면, 기독교 믿기를 강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신앙과 과학을 등식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된 기독교를 몰아내자는 ‘안티기독교’ 이름의 다양한 사이트가 활동하고 있다.²⁰⁾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안티기독교 사이트의 참가자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웃 종교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나 세상의 상식 측면에서 수준 이하에

19) 정종훈,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색”,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6 (2002), 187-215.

20) “안티기독교”, https://cafe.naver.com/antichristian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접속일 2023.4.8.

있으며, 목사에게 맹종하고, 헌금을 강요하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 기보다는 암적인 존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대의 종교가 된 개신교가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서 국민의 신뢰도나 호감도 측면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다.²¹⁾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한국교회 신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로서, 목사 후보생과 목사들을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물론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목사와 신학자로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도전적인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아예 청중조차 하지 않는 무관 심한 청자들과 청중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청자들 앞에 직 면할 때, 자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밭의 문제는 기독교윤리학자들 의 손을 떠나있는 것이기에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좋은 씨앗을 잘 준 비해서 잘 뿌리겠다는 책임만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는 자기 삶의 자리인 한반도와 한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수많은 현상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제기 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 학자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지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가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융복합적인 사고와 간학문적인 대화를 해 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시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다루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처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기독교윤리학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분야들을 세세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²²⁾ 독일어권에서 가장

21) [2022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여론 속의 여론 제 209-2호, https://hrcopinion.co.kr/report?board_name=board_5_2&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410, 접속일 2023.4.8.

22) 우리가 속한 한국기독교윤리학회는 2014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정보 자료집을 출판하며, 생명의료과학윤리, 사회경제문화윤리, 정의정치평화윤리, 생태여성주의윤

권위있는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계간지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의 참고문헌(Bibliographie)을 보면, 윤리학의 기본문제로부터 역사 문제들, 정치 문제들, 경제 문제들, 생명의료 문제들, 미디어 관련 문제들, 결혼과 가정과 성의 문제들, 여성 또는 여성신학 관련한 문제들, 에큐메니칼 또는 세계종교 문제들, 교회의 문제들 등 다양한 분야를 세세하게 나누어서 최근 출판된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다.²³⁾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 개인은 내로라할 수 있는 자기만의 분야를 구축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시의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는 대한민국헌법 1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국가 권력자나 정부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과 15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계약과 왕과의 계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왕에 대해서는 왕과의 계약을 복종할 이유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 언제나 우선이었다(사도행전 4:19, 5:29). 예수께서는 진리에 근거해서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해야 한다”(마태복음 5:37)고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일군으로 일하지 않는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로마서 13:1-4). 가이사의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던가(마태복음 22:21).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법에 귀족들, 재판관들, 최고 관리들이 정해져 있다면, 이들은 폭군적인 지배자에 반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위해 나서야 하며,

리 등으로 크게 구분한 바 있다.

23)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ZEE), Gütersloh 1998, 311-320.

특히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위협하는 법률과 명령을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⁴⁾ 존 녹스(John Knox) 역시 저항이 ‘이웃을 위한’ 일이며, 이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악한 자의 폭력 앞에서 보호를 받고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이 막아질 수 있을 때, ‘폭정에 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했다.²⁵⁾ 독일의 히틀러 정권 아래서 칼 바르트(Karl Barth)는 “우리는 거짓말쟁이들, 식언자(食言者)들, 살인자들, 방화자(放火者)들의 정부와 관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양심을 구속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스스로 교회의 적(敵) 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정부와 관계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 속에서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 속에서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불복종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²⁶⁾ 우리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악한 권력자들과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권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사상과 의미심장한 사회운동들, 우리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정립된 토착화신학과 민중신학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도전과 통찰을 기독교윤리학의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²⁷⁾ 이는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세계의 신학계와 세계의 기독교윤리학계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한국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사상과 인내천(人乃天)의 사상, 천지인(天地人)의 사상,²⁸⁾ 태극(太極) 사상 등은 성서의 정신과도 깊

24) John Calvin, *Inst.* IV, 20, 31.

25) John Knox,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14조.

26) Karl Barth, 1938년 기포드 강연.

27)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유경동,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28) 김종균, “지구화 시대와 기독교 지식인의 나아갈 길”,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253. “한국인의 삶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하나가 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생명의 교감을 나누며 살아온 천지인 합일의 삶이고, 천지인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생명체를

이 관통하는 것들이다. 왕조시대의 신분제도를 타파하고자 발원했던 동학운동, 일본제국주의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봉기했던 비폭력저항의 3.1 독립운동,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음으로 항거했던 5.18민주화운동,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촛불운동 등은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편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이 아닌가. 그리고 김교신 선생이나 류영모 선생 또는 함석헌 선생 등 강단 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 토착화신학의 결과물들, 서남동과 안병무, 문익환과 문동환, 김용복과 서광선 등 민중신학자들의 결과물들 역시 기독교윤리학 연구에 있어서는 좋은 재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분단시대 한반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과 폭력적인 지배 아래 있던 우리 민족이 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다가온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 가운데 분단된 한반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냉전(Cold War)으로 인해서 분단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던 한국전쟁은 남북의 긴장과 갈등과 대립을 첨예화시켰고, 정전 상태에서의 전쟁을 일상화시켰다. 남북에 각각 자리를 잡은 독재정권들은 분단 상황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부정한 정치권력을 공고히 했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억압하고 회피하는 도구로 삼았다. 남은 북을, 북은 남을 적으로 규정했다. 전쟁을 치른 당사자들로부터 전쟁 경

이루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를 살리기 위해 섬기고 비우고 나누고 사는 생명 중심의 삶이다.”

힘이 없는 세대에 이르기까지 원수의식이 전수되고 있다. 더욱이 이남에 등장한 보수정권은 물론이고, 보수 정치인들의 안보 논리에 의한 반공, 승공, 멸공의 주장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미국의 매카시선풍처럼 빨갱이 콤플렉스(Red Complex)를 한국사회 전반에 이식시켰다. 분단의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한반도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과 연대의 이념과 가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에서 분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동시적인 과제이다. 당장 1국가 1체제의 단일국가를 이루는 통일은 넘어야 할 산도 많을 뿐 아니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흡수된 쪽을 무력화한다. 남북이 긴장과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서로 평화롭게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남북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고양될 수 있다. 평화교류에서 출발한 남북은 2국가 2체제의 국가연합과 1국가 2체제의 국가 연방제를 거치다 보면, 언젠가 1국가 1체제의 중립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 가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평화에 큰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민족모순과 세계모순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소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삼는 것은 기독교인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²⁹⁾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윤리의 세계적인 지평을 차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시민들과 형제자매처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29) 필자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통일부에 산하의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법인 이사와 공동대표)와 '조국을 푸르게'(One Green Korea Movement, OGKM, 법인이사)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연세대학교 탈북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민 학생들 중심으로 설립된 '통일한마당'이라는 학생동아리의 지도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문제나 특정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힘을 모아 연대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특정 국가의 시민을 민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계도화 시켰고, 자기 민족 밖의 국가와 시민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조장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과 세계 시민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번영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³⁰⁾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세계윤리를 구상한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한스 쿡(Hans Küng)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³¹⁾ 이제부터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세계적인 지평에서 자유와 함께 정의를 수립하여 가난한 자와 부자, 권력자와 권력 없는 자의 차별을 타파하고, 기아와 궁핍 그리고 죽음의 구조를 혁파하며, 인권침해의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동등성과 함께 다원성을 인정하여 민족적,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척을 타파하고, 다른 세계에 대한 멸시와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형제애와 함께 자매애도 강조하여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성을 모색하고, 여성과 남성을 갈라놓는 차별을 척결하며, 여성에 대한 평가절하와 몰이해를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공존과 함께 진정한 평화를 정착하여 군비확장과 군사주의적 구조를 거부하고, 인권의 미명 아래 자행되는 전쟁을 거부하며, 갈등의 침묵에 머물기보다 평화를 증진하는 세계질서를 추구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생산성과 함께 환경과의 연대를 모색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타파하고,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극복하며, 자연을 파괴하는 삶의 양식과 생산방식을 극복해야 한다. 세계적인 지평에서 관용과 함께 일치를 도모하여 서로에 대한 불신

30) 정종훈, 『정치 속에서 꽃피는 신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제1부 2장 '기독교인과 나라사랑'에서 애국주의적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의 변증법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Hans Küng, *Weltethos*, 안명옥 옮김,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2000), 141-144.

과 적개심을 해소하고, 종교의 자유를 배척하는 편협성을 극복하며, 용서와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문제, 전쟁과 폭력과 테러문제, 난민문제, 세계기후문제, 환경재난과 기아문제, 신자유주의와 빈익빈문제, 세계무역과 금융문제 등을 직시하며 기독교윤리학을 연구하고 연대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

V. 나가는 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생명과 평화,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들로 인해서 전쟁과 폭력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살육과 증오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³²⁾ 역사 속에서 이 종교들은 서로를 적대하며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했고, ‘평화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오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학한 행위를 수없이 자행했다. 이는 이들 종교의 내재적 잘못이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해 가르쳤거나 신도들이 종교의 본질적 가르침을 오해했기 때문이고, 타락한 정치인들이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종교를 사악하게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의 여정에서 성서에 대한 문자주의적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성서의 전후 문맥을 무시하고 특정 구절을 절대화해서 삶의 지침처럼 채택하기 때문이고, 성서의 표피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서 이면의 실제적인 이야기와 의도를 간과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32) Jonathan Sacks, *Not in God's Name*, 김준우 옮김,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22).

궁극적인 뜻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관심 아래 성서를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기독교인이라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인정해야 하는 관계성,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과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책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공동체적 돌봄의 책임 등을 하나님의 뜻이자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시해야 한다.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증장애인들, 탈북민들, 외국인노동자들,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 난민들, 성 소수자들 등 공감해야 할 약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누구와도 공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죽음의 상황에 놓인 인간 생명이든 멸종의 위기 앞에 직면한 생태 생명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존재의 이유를 보증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공명하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혼자 또는 소수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도 지역적 연대와 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해결할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느 것 하나도 낙관하지가 않다. 무엇보다 한국의 종교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³³⁾ 종교를 지지하는 힘은 약화

33) [2022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https://hrcopinon.co.kr/archives/25186>. 접속일 2023.4.8. 한국리서치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년 전의 종교와 지금의 종교 사이의 편차는 놀라울 정도로 크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1년 전인 2021년 11월에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서는 12%가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천주교 신자였던 사람 중에서는 8%는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1년 전 불교 신자 중에서는 9%가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1년 전 믿는 종교가 없었던 사람 중 96%는 현재도 믿는 종교가

되고, 종교에 대한 부정적 논란은 강화되는 형편이다. 이웃 종교들에 비해서 한국개신교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고, 개신교 신학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삶의 자리가 동서남북으로 막혀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필자가 산적한 많은 문제를 동료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 떠넘기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한국교회를 위협에 방치하지 않고, 나아가 한국 사회와 인류공동체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낼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Bauckham, Richard. *Who is God?*. 이형일 옮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3.
- Boff, Leonardo. *Holy Spirit*. 이정배 옮김. 『오소서, 성령이여』.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17.
- Bonhoeffer, Dietrich. *Nachfolge*. 손규태, 이신건 옮김. 『나를 따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Honecker, Martin. *Konzept einer sozialetische Theorie. Grundfragen evangelischer Sozialethik*. Tübingen 1971.
- Huber, Wolfgang. *Protestantismus und Protest. Zum Verhältnis von Ethik und Politik*. Hamburg 1987.
- Jeong, Chong-Hun. *Die deutsche evangelische Sozialethik und die Demokratie seit 1945 : Der Beitrag der EKD-Denkschriften zur Demokratie*, Frankfurt am Main/ Berlin/ Bern/ New York/ Paris/ Wien, 1997.
- Küng, Hans. *Weltethos*. 안명옥 옮김. 『세계윤리구상』. 왜관: 분도출판사, 2000.
- Rich, Arthur. *Wirtschaftsethik. Grundlagen in der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4.
- Sacks, Jonathan. *Not in God's Name*. 김준우 옮김. 『하나님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라』.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22.
- Weber, Max. *Politik als Beruf*. 김현욱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 서울: 동서문화사, 2020.
- Weber, Max. *Wissenschaft als Beruf*. 김현욱 옮김.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동서문화사, 2020.
-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ZEE)*. Gütersloh 1998.
- 김군진. 『생태학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성희/안효진/이용성. 「리좀적 사유를 통한 공명하는 교육과정 생성하기」. 『생애학회지』 12권(2022), 1-19.
- 김종균. 「지구화 시대와 기독 지식인의 나아갈 길」.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229-257.

-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23.
- 노영상.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학문적 정위”.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9-37.
-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 유경동.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 정종훈. “기독교윤리적 논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쟁과 대안모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6 (2002), 187-215.
- 정종훈. 『정치 속에서 꽃피는 신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편.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학술정보 자료집』. 서울: 동연출판사, 2014.
-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미래학회 좋은정책포럼.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파주: 나남, 2010.
- 허호익. 『그리스도의 삼직무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동성에 관련’, 금지 불허 퇴출 등 규제강화”, <https://www.pckworld.com/article.php?aid=7512796309>, 접속일 2023.4.8.
- “안티기독교”, https://cafe.naver.com/antichristiani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접속일 2023.4.8.
- [2022 종교인식조사]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186>. 접속일 2023.4.8.
- [2022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 여론 속의 여론 제 209-2호, https://hrcopinion.co.kr/report?board_name=board_5_2&order_by=fn_pid&order_type=desc&vid=410, 접속일 2023.4.8.

논문투고일: 2023년 05월 09일

심사개시일: 2023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01일

• 국 문 초 록 •

지금 우리 시대는 약자에 대한 공감(共感)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생(共生)의 덕목보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의 방식이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를 잡고 있다. 공감하지 않는 시대, 공생하지 않으려는 사회에서 공명(共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는 기독교윤리학자로서 살아온 삶과 그동안 노력했던 학문적 여정을 돌아보며,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하는 동료들에게 연구자로서 어떻게 학문적 결과물을 내야 할지 도전하고자 한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정체성은 윤리학자이고, 두 번째 정체성은 기독교인이며, 세 번째 정체성은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윤리학자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탐구해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한국인으로서 사회윤리적인 과제를 철저히 감당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공감해야 하고, 사람과 자연 누구와도 공생해야 하며, 사회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공명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기초해서 한국 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주제어: 공감, 공명, 공생, 기독교윤리학자, 상보성의 원칙, 세계윤리
